

Vol.179

MAY+JUN
2025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협업의 시너지

나는 당신과 어떻게 다르고
또 나는 당신과 무엇이 같고
그렇게 서로를 헤아리며 나아가다 보면
막막한 어둠과 휘몰아치는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QR코드를 통해 미래를 위한 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의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세요.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MAY+JUN 2025 Vol.179



협력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도서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중에서

격월간 <원자력연료-KNF매거진>을 모바일로도 만나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KNF MAGAZINE



KNF MAGAZINE
MAY+JUN 2025
Vol.179

발행일
2025년 5월 9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발행인
정창진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9-3444

기획·디자인·제작
(주)이팝

KNF-LIVE

- 04** 요즘 KNF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뉴스
- 08** KNF ATTITUDE
협업의 시너지
- 10** 배움 토크
협업의 시너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

KNF-INDEX

- 14** 전지적 개발시점
사용후연료 안전취급의 새로운 기준 SAFER
- 16** 원자력 알쓸신잡
월성1호기 해체,
주요 관건과 향후 과제는?
- 20** KNF 선구자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찾는 힘
장순흥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KNF-LIFE

- 24** 안전알림 KNF
산불재난 대응체계
- 28** 열정 뽐뽐!
미래를 향해 함께 달리다
러닝 원데이 클래스
- 32** 구독해 드립니다
풍류를 즐기기 좋은 날, 전통주 구독 서비스
- 36** 배달의 KNF
함께 나누는 소소한 즐거움, 배달 완료!
- 40** 문화살롱
함께 떠나요, 지역축제
- 42** KNF ON AIR
노노그램 5+6월호 문제 & 3+4월호 정답자
행운의 딱지 당첨자 & 독자 한줄평

KNF NEWS

한전원자력연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달성



우리 회사는 4월 21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하였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자 매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은 공기업형과 준정부형·기타형으로 나뉜다. 준정부형·기타형에 속하는 우리 회사는 2021년 이후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우리 회사는 '함께 성장하는 원자력 생태계, 함께 가는 미래 에너지'라는 동반성장 비전을 내걸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다. 특히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기술 보호, 생산성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과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 및 협력이익 공유, 경영 안정화 지원, 협력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창진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및 지역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한전원자력연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

2

제22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성료



우리 회사는 4월 12일 하남 미사경정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제22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기사랑 마라톤대회'는 5km 걷기, 5km 건강달리기, 10km로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5,000여 명이 참가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회사의 염동중 사수가 10km 남자 부문 1위를 차지해 우리 회사를 빛냈다. 염동중 사수는 지난 전기사랑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다수 차지했다.

3

대전충청감사협의회 4월 정례회의 개최



우리 회사는 4월 8일 대전 본사에서 '대전충청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설치·운영된 대전충청감사협의회는 대전 및 충청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감사협의회에서는 대전충청감사협의회 회원 17개 기관의 상임감사 및 감사인이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KNF NEWS

2025년도 신입직원 입사식 개최

우리 회사는 3월 18일 '2025년도 신입직원 입사식'을 개최하여 신입직원들의 새 출발을 환영했다. 총 65명의 신입 직원은 2월 28일에 입사해 약 2주간의 입문 교육 과정을 거쳐 회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직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입사식 이후 각 현업부서로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사식에서는 신입직원들에게 임명장과 휘장을 수여한 후 CEO 환영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신입직원 교육 과정을 담은 스케치 영상을 통해 한전원자력연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직원들의 포부를 보여주었다. 이날 정창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전원자력연료의 새 가족이 된 신입직원을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라고 축하하며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청렴과 신뢰의 아이콘으로 함께 걸음을 시작하자”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꿈 잃었던 자기 계발과 혁신을 통해 회사의 미래를 열어 가는 주인공이 되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우리 회사는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고자 공기기업으로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하였다.

4



Kn-power를 위하여 불굴의 빛, 원자력의 길

홍종승

깊은 바다를 헤엄쳐 올라온 빛
뜨거운 불꽃 속에서 피어난 의지
손끝에서 새겨진 정밀한 공정으로
우라늄 덩어리를 쌓아 올린 꿈

모래바람 부는 아랍의 땅에
우리가 지핀 희망의 불씨
낮선 언어, 다른 하늘 아래서도
우린 같은 태양을 밝히려

체코의 강물에 비친 우리의 빛
낯설지 않은 푸른 빛깔의 미래
강한 신념과 기술의 힘으로
세계 속에 새긴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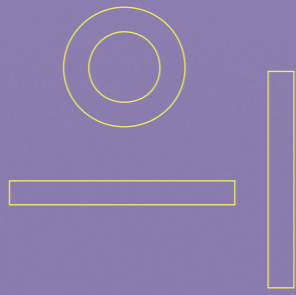
핵연료의 불꽃은 식지 않으리
우리가 가는 길은 멈추지 않으리
에너지 자립의 거친 파도를 넘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리
Kn-power를 위하여...

※ Kn-power : Korea nuclear power

홍종승

·정년퇴직 (2016. 12.)
·경수로연료처장 역임

행복의 비밀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 잠시 우리의 다른 점을 살펴봅시다.

나는 당신과 어떻게 다르고
또 나는 당신과 무엇이 같고
그렇게 서로를 헤아리며 나아가다 보면
막막한 어둠과 휘몰아치는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보고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당신과 내가 더해져 새로운 우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미래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시너지

협업의 시너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

글: 김성락(룩업 컨설팅 대표)

협업의 힘은 무엇일까?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빠른 변화의 연속이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과 함께 촉발된 관세 전쟁, 기후 위기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 증대, 원자재·설비·물류 등의 공급 불안정성 등 생존을 위한 기민한 대응은 나날이 강조된다. 특히 원자력 분야는 기술과 환경,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규제 변화나 기술 혁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전원자력연료(KNF)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UAE 핵연료 공장 건설 사업과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제조회사로서, 3공장의 상업 가동과 고유연료 모델인 HIPER16의 상용 장전, 고유 설계 코드의 본격적인 적용(OPR 원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 확대,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미래 혁신형 생산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그간 이루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큰 가치 성장을 만들어낼 핵심 DNA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협업'이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교류하거나 분담하는 행위가 아니다. '협업'은 서로의 관점을 연결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전문가뿐 아니라 IT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오사카의 19개 중소기업은 '오사카 케이오스'라는 공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 회사의 기술 협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신규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가치를 확장해 낸 과정에는 협업의 DNA가 굳건하게 자리한다. 그렇다면 한전원자력연료(KNF)가 협업의 가치를 더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구성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과 태도는 무엇일까?



김성락

룩업 컨설팅 대표, HR 전문가, 현장의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LG 인화원과 넥슨코리아 인재육성팀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협업의 힘: AI 시대를 이기는』(플랜비디자인, 2025), 『저성과자로 고민하는 팀장에게』(플랜비디자인, 2024) 등이 있다.

태도와 능력,

협업을 이끌어내다

협업의 시작은 개인, 즉 '나'로부터 시작된다. 협업은 나와 타인 간의 상호 작용이므로, 각자의 역량과 강점이 서로를 향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과 더불어, 가치 있는 상호 작용을 해낼 수 있는 태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그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긍정성'과 '자기 성찰', '실행력'이다.

(1) 긍정성

협업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굳이 '협업'을 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업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협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협업 태도를 취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도 하다.

(2) 자기 성찰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타인에게서 도움받아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인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준다.

(3) 실행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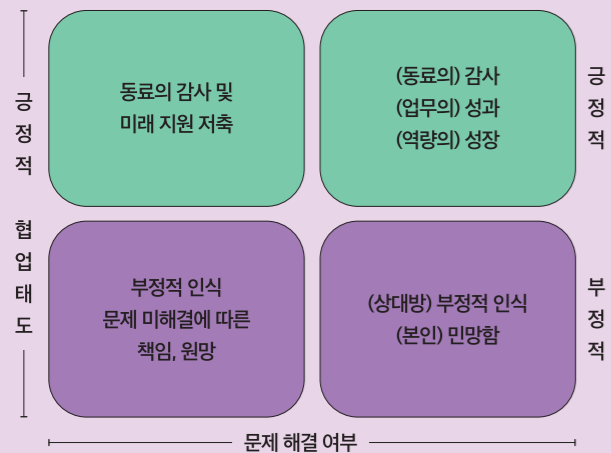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실행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현실에 결과로써 변환해 주는 기폭제와 다름없다. 실행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가시화된 변화를 중심으로 또 다른 이들이 모여들며 더욱 큰 시너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행력은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을 촉진하는 본원적 역량 중 하나이다.

구성원 각자가 긍정성, 자기 성찰, 실행력 등의 역량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할 때, 조직 전반의 협업 문화는 강력해진다. 이러한 문화는 곧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KNF)는 조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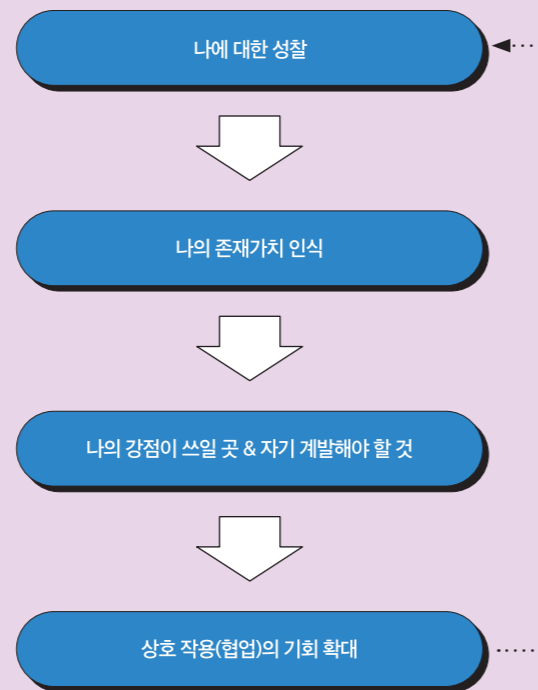
협업을 촉진하는 공동체의 비결

효과적으로 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규율'과 '자율'이다.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통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구성원들은 지시받지 않은 일에 관해 움직이려 들지 않고, 자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서 결국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은 규율과 자율의 균형을 추구한다.

<긍정적 협업 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성찰의 선순환 구조>



<단계별 협업 경험 MoT>

| | Awareness | Consideration | Collaboration | Evaluation |
|-----------------------|--|--|--|--|
| A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요청을 받음 요청의 배경과 목적을 들음 요청과 관련된 정보 확인 관련된 이해관계자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필요성을 검토 자신의 역할 및 기여도 검토 (과거 경험 상기) 협업에 따른 Risk/Benefit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건에 대해 소통, 조율 협업 활동을 수행함 피드백을 주고 받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결과 리뷰 결과(성과) 평가 기여 사항 및 개선점 도출 협업 경험 공유 향후 협업 기회 논의 |
| MoT (Moment of Tru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팅/회의 요청 협업 목적 및 요청 내용 전달 (구두/서면/메신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의 필요성 전달 요청자가 생각하는 내 역할의 가치 전달 Risk 및 Benefit 전달 유사 사례 Reference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회의 상대방/나의 역할 수행 모습 - 소통 및 이슈 조율 태도 - 책임감 - 문제해결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결과(성과) 리뷰 회의 - 목표 달성 수준 확인 - 기여 사항 확인 - 긍정/보완점 도출 경험에 대한 느낌 |
|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한지 여부 요청 내용과 관련된 배경과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의 필요성 정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명확성 여부 역할 수행의 가치와 기여도 수준 제시하는 Risk와 Benefit 구체성과 매력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보 및 헌신적 태도의 정도 협업 과정에서 가치(본질) 중심의 행동 여부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R&R 준수의 정도 문제해결력과 커뮤니케이션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결과의 성과 수준 기여에 대한 인정 여부 협업 경험을 통한 성장감/성취감 정도 협업 활동이 남긴 가치의 정도 (개인/조직) |

출처: '협업의 힘: AI시대를 이기는', 김성락, 발체 인공

규율과 자율,

균형을 확보할 방안은?

첫째,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조직이 나아가려는 방향과 달성하려는 목표가 명확할수록 구성원들은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 개인이 자기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바탕이기도 하고, 동료들과의 협업 활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명확한 방향성은 일터에서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어, 개별 구성원에게 필요한 행동과 지양해야 할 행동을 구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다.

둘째,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환경은 구성원 각자가 보유한 정보가 누락이나 왜곡 없이 상호 공유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안을 대하는 관점을 확장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나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Cross Functional Team(이하: CFT)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CFT는 각기 다른 전문성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다. 예를 들면, Apple은 상품 기획 초기 단계부터 CFT를 구성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혁신적 상품 개발'

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 기획 및 개발의 모든 단계마다 협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이 연결, 통합되며 협업의 효과가 축적되어 Apple의 혁신적 상품 기획 및 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협업하는 KNF를 위한 제언

협업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 차원의 필요조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 협업의 가치를 공감하고 현실에서 충실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결국 협업 경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협업 경험의 세부 단계는 협업을 인식(Awareness)하는 단계, 협업의 필요성을 검토(Consideration)하는 단계, 협업 활동을 수행하며 상호 작용(Collaboration)하는 단계, 협업 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하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단계마다 긍정적 협업 경험을 유발하는 MoT(Moment of Truth)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를 요약해 제시하니 참고한다.

넓은 바다를 한 척의 배로 항해하는 과정을 연상해보자.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시시때때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히 노력하되, 서로 함께 협업할 때 새로운 대륙을 마주할 수 있다. 한전원자력연료(KNF) 구성원들이 진정한 협업의 기쁨과 성취를 누리기를 기원한다.

일부 과거 수입 원자력연료 중에는 입계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에 의한 상단고정체-안내관 분리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사용후연료 취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개발한 SAFER (Safely Adapting FastnER)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용후연료의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사용후연료 안전취급의 새로운 기준, SA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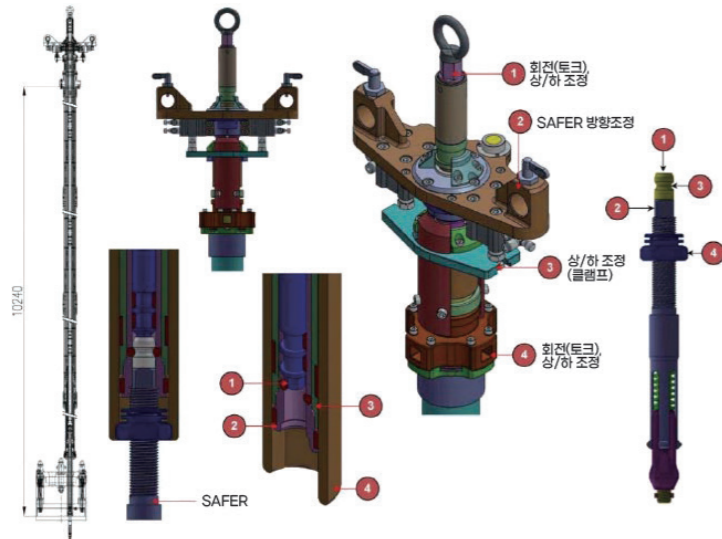
사용후연료, 안전한 취급이 필수적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를 교체한 후 남은 사용후연료는 별도의 저장시설에서 보관되며, 이후 최종 처리를 기다린다. 하지만 일부 발전소에서는 사용후연료 취급 과정에서 상단고정체와 안내관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리 1호기 및 미국 North Anna 발전소에서 이러한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상부지지격자 슬리브(소재: SS304)의 입계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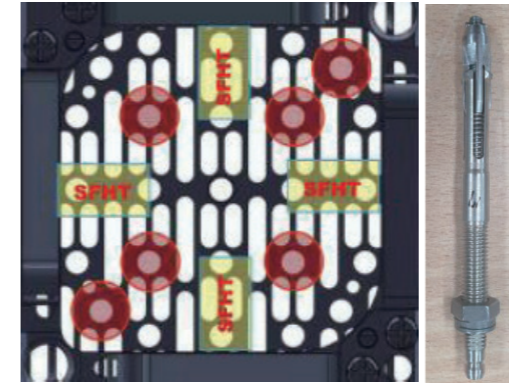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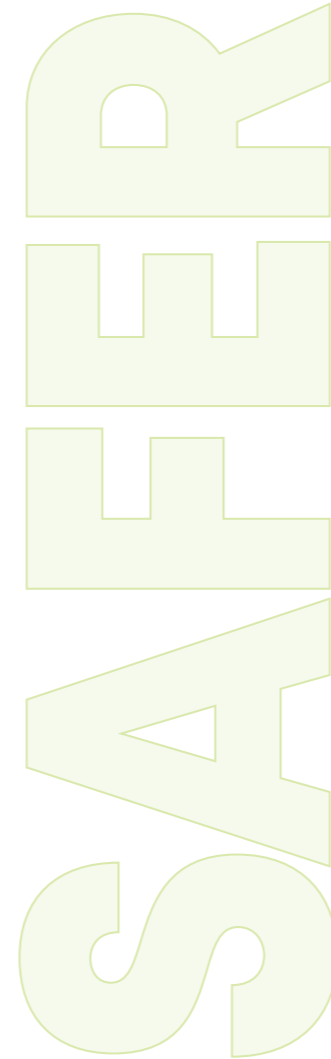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KNF)는 상단고정체 분리 우려가 있는 사용후연료의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는 보강기구, SAFER(Safely Adapting FastnER)를 개발했다.

SAFER, 어떻게 해결할까?

SAFER는 사용후연료의 상단고정체와 안내관을 고강도로 체결하여, 취급 중 분리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장치다.



<SAFER-Loader 작동 방식>



<설치 위치 및 SAFER 완제품>

SAFER의 핵심 기능

| | |
|-------------------|---|
| 고강도 체결력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관 벌지부에 장착되어 마찰력과 기하 간섭력을 활용한 이중 체결 구조 적용 집합체 당 4개 설치 → 기존 타사 제품(6개) 대비 효율적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위치: 중심부 4곳(필요 시, 모서리 2곳 설치 가능) 집합체 중량 3배(g) 이상의 강력한 체결력 확보 → 기존 타사 제품(2g) 대비 우수한 성능 확보 |
| 소형 설계로 취급 및 보관 용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약 15cm로, 설치 및 보관이 간편 |
| 검증된 안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및 열적 안정성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및 규제기관 협의 안료, 인허가 비대상 판정 |

SAFER, 왜 중요한가?

현재 국내 원전에서 취급 주의가 필요한 사용후연료는 1,000다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만약 SAFER가 적용되지 않으면, 연료 인출 과정에서 상단고정체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는 연료 취급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SAFER는 사용후연료의 취급 안전성을 보장하고, 원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KNF 독자기술이다.

SAFER, 현장 적용과 기대효과

2024년, SAFER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5개 호기(고리 1·2·3·4호기 및 한빛 1호기)의 총 1,014 다발에 적용이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후연료 취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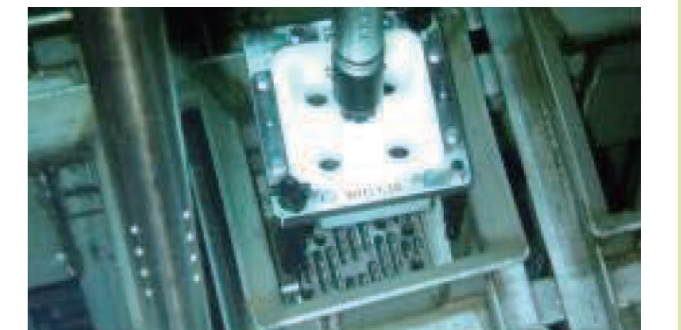
| | |
|--------------------|--|
| SAFER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연료 인출 과정에서 사고 예방 · 연료 취급 안전성 향상 및 발전소 운영 신뢰도 증가 ·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적용 가능성 확대 |
|--------------------|--|

한전원자력연료,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HANA™ 소재, 사고저항성 연료(ATF) 등과 함께 SAFER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향후 SAFER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에도 수출 가능성도 있으며, 원자력 연료의 취급 및 보관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에서 수중 SAFER 성능 시험>

월성1호기 해체, 주요 관건과 향후 과제는?

글: 윤종일(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방사화학 및 레이저 분광 연구실을 운영 중. 산화수 6가의 플루토늄이 탄산 이온 및 알칼리토금속과 결합하여 삼성분 칼슘/마그네슘 플루토닐 카보네이트 화합물(CaPuO₂(CO₃)₃·2-, MgPuO₂(CO₃)₃·2-)이 형성됨을 최초로 규명했다.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들어가는 말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로, 1975년 착공되어 198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해당 원자로는 가압중수로 방식(CANDU, 679 MWe)으로 설계되었으며,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중수(D₂O)를 감속재 및 냉각재로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 월성1호기는 연간 약 50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총 1억 3천9백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하였다.

월성1호기의 30년 운영 허가는 2012년에 만료되었으나,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년 연장 운영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2018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되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5년 4월까지 월성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원전 해체는 단순한 물리적 철거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월성1호기의 해체 과정의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원전 해체 기술 및 전략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원자력 시설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 제28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영구 정지 후 5년 이내에 해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계획 개요, 사업관리, 환경영향평가,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11개 평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원전 해체 방식은 크게 즉시 해체(Immediate Dismantling), 지연 해체(Deferred Dismantling), 봉인(Entombment)으로 구분된다. 즉시 해체는 원자로 가동 정지 후 짧은 기간 내 열과 방사능을 감소시킨 후 바로 해체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지연 해체는 일정 기간 방사성 물질의 자연 감쇠를 기다린 후 해체하는 방식이다. 봉인은 방사능 준위가 높은 설비를 밀봉한 채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소규모 시설에 적용한다.

해체 방식은 방사선 피폭 및 경제적 효율성과 각국이 처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국과 독일 등은 즉시 해체 방식을, 영국은 지연 해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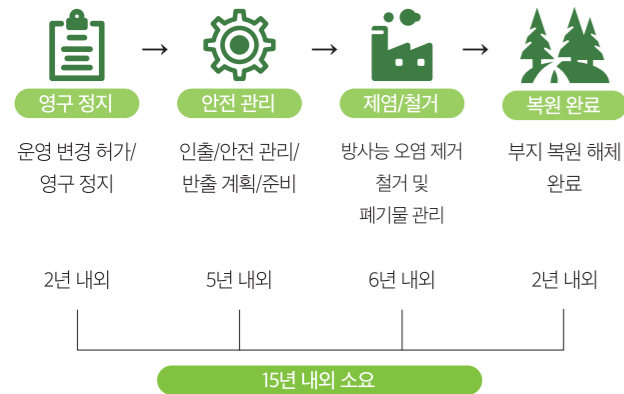
원전 해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원전 해체의 단계>

1. 해체 준비 단계: 해체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규제기관 승인 절차
2. 제염 단계: 사용후핵연료 인출 및 방사성 오염 물질 제거
3. 해체 단계: 구조물 철거 및 절단
4. 폐기물 처리 단계: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안정화
5. 환경복원 단계: 친환경 부지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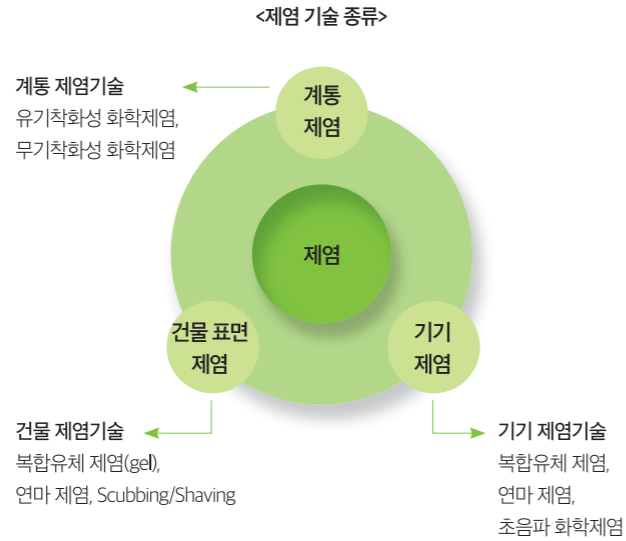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해체 작업은 방사능 오염이 높은 설비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방사성폐기물을 감용한 후 안정화하여 처분한다. 해체폐기물은 분류 절차를 거쳐 일부는 재활용되거나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기도 한다.

<원전 해체 주요 절차>



해체 기술 고려 사항

원전 해체에서 핵심은 '제염 기술'이다. 제염은 원전 해체 전후에 원자로 시설뿐만 아니라 원전 부지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것이다. 방사능 제염에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전기화학적 방법 등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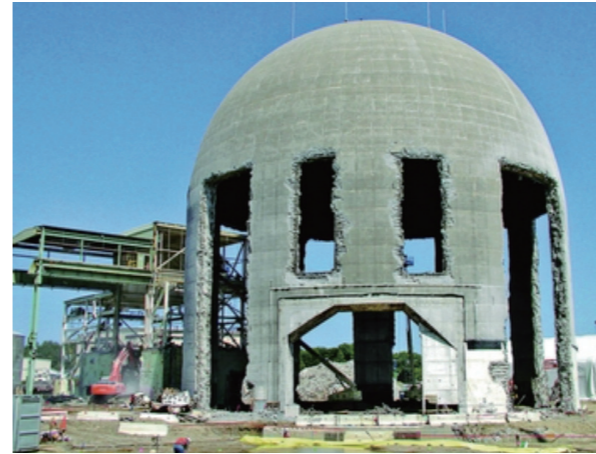


월성1호기 해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체 기술의 자립과 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 기술의 적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핵심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이 후발주자인 만큼,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한 첨단 해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 해체 기술 동향과 규제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술 수준을 점검하여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감용 기술을 개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안정화 및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오염된 해체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기술 또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 해체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체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줄이고, 해체 이후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해체 중인 Main Yankee 원전 / 출처: The Yankee Companies 자료 참조



해체 후 복원한 Yankee Rowe 원전 부지 / 출처: IAEA, PRIS Database, 2025.3.23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부지 복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월성1호기의 해체는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기회 창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원전 해체 과정에서 환경 보호는 필수적인 요소로, 방사성 오염 방지 및 부지 복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성공적인 해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전략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의 성공적인 해체를 위한 기술적 전략>

- 1) 핵심 해체 기술의 자립화 및 실증 인프라 구축
 - 해체 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해체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테스트 인프라 구축
- 2) 국제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해체 기술 개발
 - 첨단 IT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해체 공정 최적화
 - 원격 조작 기술 도입을 통한 작업자 방사선 피폭 저감
- 3)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관리 기술 개발
 - 고준위/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안정화 기술 개발
 - 해체폐기물 안정화 및 자원화 기술 개발
- 4) 친환경 해체 기술 개발
 - 해체 부지의 방사성 오염 최소화 및 자연 상태 복원
 - 환경 모니터링 및 방사능 장기 추적 기술 개발

원전 해체 비용과 시장성

원전 해체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해체 비용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작업자의 방사선 보호조치, 환경복원 등이 포함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원전 해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면, 원자로 해체 기간은 약 13~14년 정도 소요되고 원자로 1기당 해체 비용은 약 6천억 원~1조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14기이며, 이 중 21기만 완전히 해체되었다. 2050년까지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해체 시장은 4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한국이 중수로 해체 관련 기술을 선점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맺음말

월성1호기의 해체는 중수로 해체 최초 사례로서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해체 기술 개발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부지 복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순홍 총장은 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MIT에서 핵공학을 공부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불모지 같던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이끌었고, 교육자로서 대학 혁신의 흐름까지 이끈 입지전적 인물이다. KAIST와 한동대를 거쳐 지금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여전히 교육과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찾는 힘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장순홍

기술 자립의 시작, 원자력과 함께한 길

❶ 총장님이 원자력공학자의 길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초등학교 시절, 서울 인왕산이 온통 민둥산이던 게 기억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엔 에너지가 없어 나무를 다 땔감으로 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어릴 적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자립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특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로써, 에너지를 고민했고, 그것이 원자력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❷ 당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어떤 수준이었나요?

1980년대 초반 해도 원전은 지었지만, 설계는 외국 기업이 도맡았어요. 설계 코드는 공유되지 않았고, 원자력공학 전공자들의 일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미국 MIT에서 핵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벡텔(Bechtel)사에서 안전해석 실무를 배운 뒤 귀국해 1982년 KAIST에 부임하고 곧장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설계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원전은 지을 수 있었지만 설계 능력은 없었어요. 핵심 코드는 미국이 공개하지 않았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독자 개발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해석 기법을 개발했고, 이후 APR1400의 개발과 UAE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원전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❸ APR1400 개발 당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냉각재 상실 사고 해석에 필요한 핵심 코드를 제공하지 않아, 독자적인 불확실성 해석 기법을 새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기술 자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APR1400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미국에서 설계인증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때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순홍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KAIST 명예교수로, 한동대학교 총장과 KAIST 교학부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원자력공학자이다. MIT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한국형 원전 APR1400 개발과 장스 밸브 도입 등 원자력 기술 자립에 기여했다. 국제원자력기구(AEA)와 한국원자력학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에서 활동하며 원자력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였다. 저서로는 《가지 않은 길》, 《카이스트 혁신 10년》, 《장순홍의 교육》 등이 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원자력

❶ 총장님이 강조하신 '장스 밸브'도 그런 기술 중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중대사고 시 원자로 압력을 낮추고, 냉각수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감압장치 개발해 제가 제안했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형 원전 OPR1000에 적용한 거죠. 이 장치가 사고 시 냉각수를 효과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당시 한국전력과 미국 파트너사는 비용 문제로 반대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 기술이 중대사고 확률을 1/10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요인지 다시 한번 부각됐죠. '장스 밸브(Chang's Valve)'라고 불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❷ 최근 주목받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대형원전은 이미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SMR(소형모듈원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정교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허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뉴스케일도 상용화를 2029년으로 보고 있지요. 우리도 대형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SMR 개발과 실증을 병행하면 충분히 앞설 수 있습니다. 경주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그 실증과 개발의 거점이 될 겁니다.

❶ 국민 인식 측면에서 원자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국민이 '안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심층처분기술과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재처리 기술도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결국은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과 경제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다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과 국민 소통이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❷ 다시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겪은 탈원전의 시간은 값비싼 수업료였지만, 기술력과 인프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시간만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협업과 신뢰, 그리고 속도가 핵심입니다.



문제를 즐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답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문제를 찾고, 스스로 배우고, 함께 해내는 인재

❶ 교육자로서 총장님이 강조하시는 'PSC 인재'란 무엇인가요?

PSC는 Problem finding(문제 발견), Self-learning(자기주도 학습), Collaboration(협업)을 말합니다. AI 시대에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좋은 문제'를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웃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산업의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공부해서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 그런 인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PSC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AI가 대부분의 답은 다 줍니다. 중요한 건 '좋은 문제'를 찾는 겁니다. 산업 현장, 지역사회, 전 세계 어디서든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산외대는 현재 무려 23개 언어를 가르치는 국제 캠퍼스입니다. 여기에 기술과 융합 역량을 더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인재가 될 수 있어요.

❷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서도 교육 실험을 이어가고 계시죠.

네, 무전공 입학 제도를 도입해 학생이 입학 후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가반 맞춤형 교육, 국제협력 강화, 무료 아침식사 제공 같은 복지도 확대했어요.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배움이 지속됩니다. 캠퍼스를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❶ 카이스트에서 10년 이상 보직을 맡으며 교육제도 혁신도 이끄셨 습니다.

테뉴어 제도, 입학사정관제, 교수 임용 기준 등 당시로서는 도전적인 시도였지만, 결국은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대학

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구성원의 역량과 제도가 조화를 이뤄야 진짜 혁신이 가능합니다.

❶ 후배 과학기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문제를 즐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답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저는 연구든 교육이든, 늘 새로운 문제를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도 늘 도전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었습니 다. 과학기술은 결국 인간과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Atoms for Peace'에서 'Atoms for Humanity'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배경지식 돋보기 •

장스 밸브(Chang's Valve)란?

'장스 밸브'는 장순홍 박사가 설계에 도입한 안전감압장치로, 중대사고 시 원자로 압력을 낮추고 냉각수를 주입해 사고 확산을 막는 핵심 기술이다. 초기엔 예산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원자력 업계에서 '장스 밸브(Chang's Valve)'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APR1400은 OPR1000의 개량형으로 개발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다. 장순홍 박사는 설계 및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100% 국산 기술로 완성된 APR1400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성공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까지 획득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불재난 대응체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건조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는 매년 봄·가을철에 대규모 산불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며 지난 3월에 발생한 고성, 산청의 산불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산불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산불 개요

산불이란?

산불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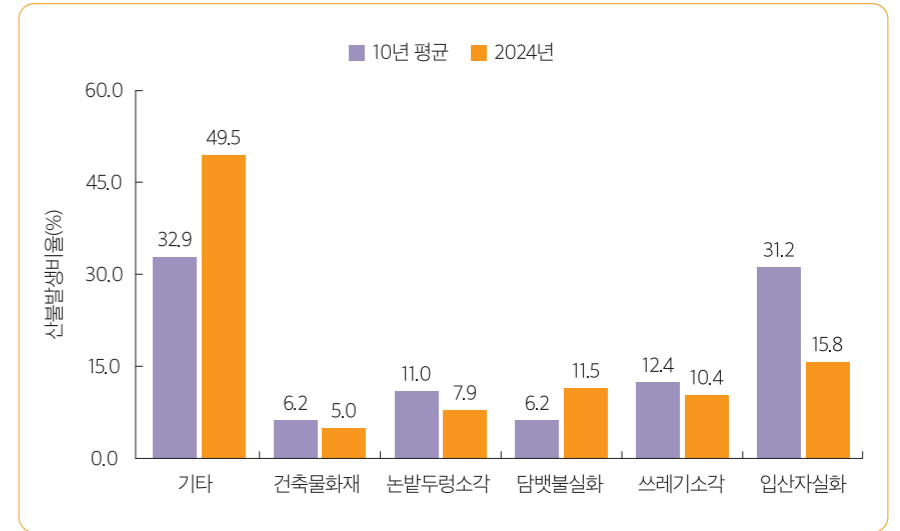
산불은 어느 부위가 타는지에 따라 땅 속의 부식층을 태우는 지중화(地中火), 지표에 있는 잡초·관목·낙엽 등을 태우는 지표화(地表面火), 서 있는 나무의 줄기를 태우는 수간화(樹幹火), 그리고 서 있는 나무의 가지와 잎을 태우는 수관화(樹冠火), 산불의 불기둥으로 인해 상승한 불뿔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 또 다른 산불을 만들어 내는 비화(飛火)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대부분 지표화로 시작하여 점차 수관화로 번져 비화를 일으킨다.



산불의 종류(타는 부위에 따라 구분)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31.2%, 쓰레기소각이 12.4%, 논·밭두렁 소각은 11.0%로 전체 산불의 절반이 넘는 원인이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행위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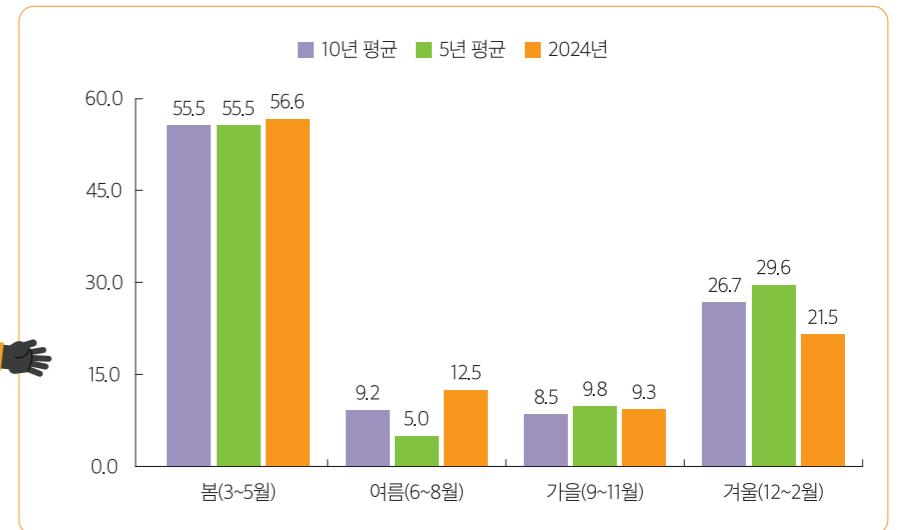


<최근 10년 평균 원인별 산불발생비율(%)>

※출처: 산림청 산불통계

계절별 산불 현황 비교

최근 10년 평균을 살펴보면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지역에 따라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산불의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전체 산불의 55.5%가 봄철에 발생한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현재 계절별 산불 현황 비교>

※출처: 산림청 산불통계

2 한전원자력연료 산불재난 관리체계

산불 예방체계



산림감시용 CCTV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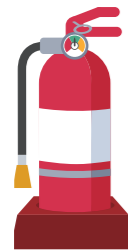
산불진화차량 회차 구간 조성



건축물 주변 수목정리(수시)



산불 진화 장비함(5개소) 배치



산불 대응체계

재난안전 위기대응매뉴얼 운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 최소화

위기경보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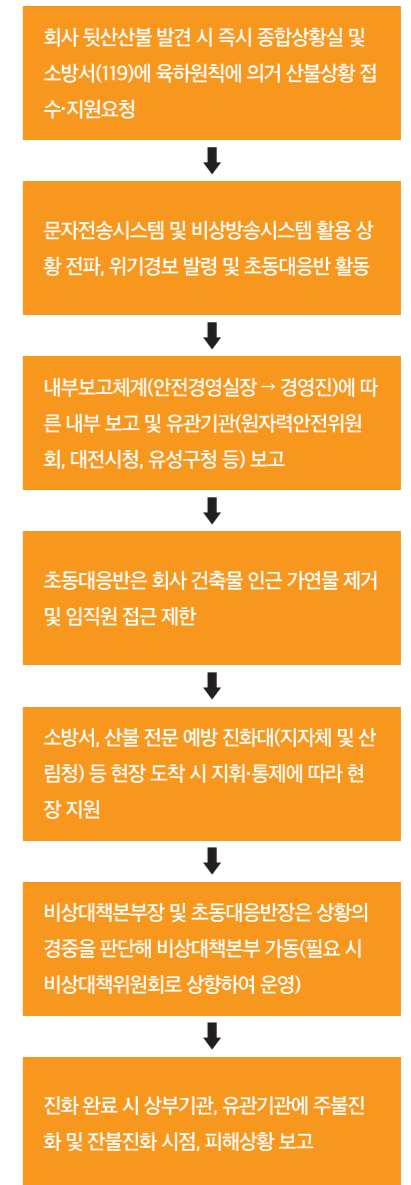
| 구분 | 판단 기준 |
|-------------|---|
| 관심 (Blue) | ▶ 회사 부지 근처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 불빛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었으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위치 및 진행방향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인 상태 |
| 주의 (Yellow) | ▶ 유관기관으로부터 회사 부지 인근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통보 받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경계 (Orange) | ▶ 산불이 회사 부지 방향으로 확산하여 산림에 인접한 주요 시설물에서 화염, 불꽃 등 화재징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연기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
| 심각 (Red) | ▶ 산불이 회사 부지의 산림 경계까지 확산하여 부지에 인접한 주요시설물에 화염, 불꽃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

위기수준에 따라 초동대응반 또는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산불은 빠른 확산성과 파괴력을 지닌 대표적인 자연재난으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특히 원자력연료 본사는 산림(적오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언제든 산불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대응 조치 체계도



미래를 향해 함께 달리다 러닝 원데이 클래스



흔히 러닝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과거의 내가 이뤄놓은 기록을 오늘의 내가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러닝 크루가 인기몰이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 함께 달리면 혼자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찾아온다. 더 오래,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네 사람의 알찬 하루를 소개한다.

글. 문예은 사진. 황지현

딱 좋다, 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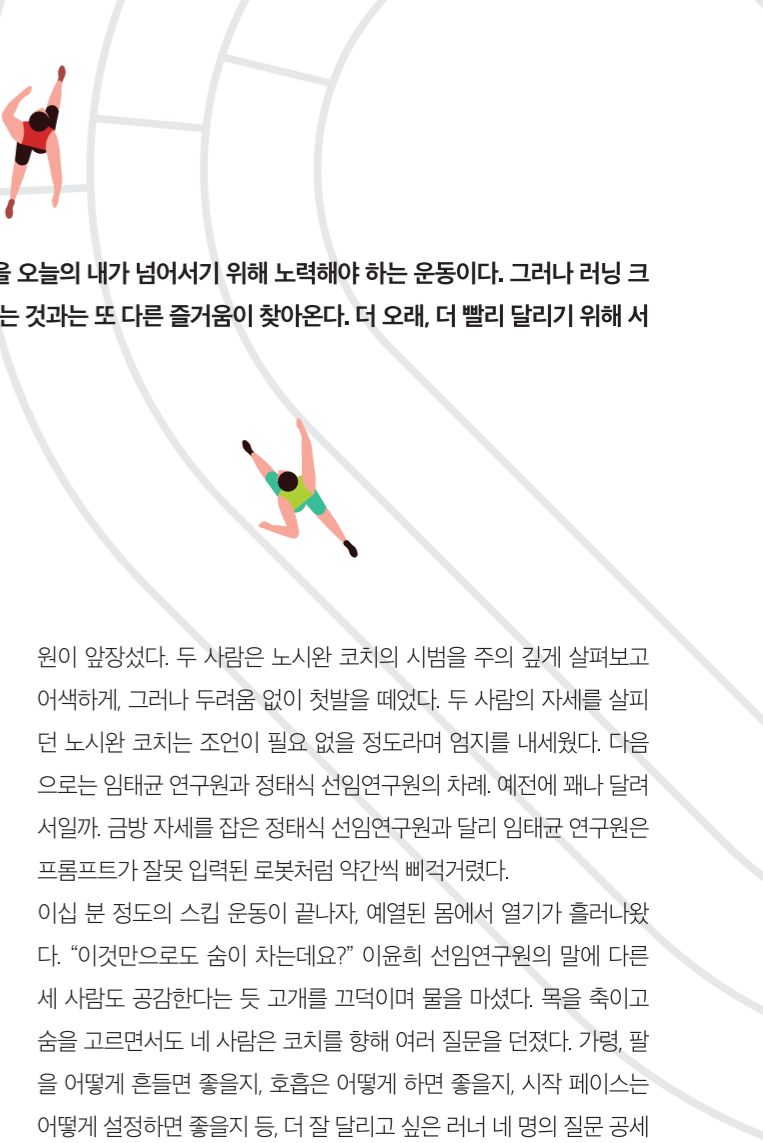
봄꽃이 움트는 3월의 어느 날, 운동복 차림의 네 사람이 카이스트 운동장에 모였다. 설계품질 인허가부 이윤희 선임연구원, 안전해석처 과도해석부 윤상준 선임연구원, 노심설계처 APR노심설계부 임태균 연구원, 국내설계관리부 정태식 선임연구원이다. 2012년도에 입사한 네 사람은 함께 러닝을 즐기고 있다. 특히 이 중 이윤희 선임연구원, 윤상준 선임연구원, 임태균 연구원은 러닝 어플을 이용해 서로의 기록을 주고받고 독려하는 소소한 러닝 크루에 속해있다. 임태균 연구원은 “함께 달리는 날은 많지 않지만, 기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극이 된다”며 웃었다. 세 사람은 경력 1년 남짓의 러너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러닝을 권유해서 시작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정태식 선임 연구원은 작년에 러닝을 시작한 세 사람과 달리 이전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 경력이 있는 러너다. 그러나 육아와 박사학위를 병행하며 약 7년간 운동을 쉬게 되었고 세 사람을 통해 올해부터 다시 러너가 되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주력의 네 사람은 코치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은 적 없으며 모두 들떠있었다. 네 사람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노시완 코치가 도착하자 모두 동글게 모여서 인사를 하며 원데이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시작이 반이다

달리기 전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칭에 이어서 플라스틱 컵을 들고 온 노시완 코치가 쾌활하게 물었다. “오늘은 스킵 운동을 먼저 해볼 거예요. 스킵 운동이 뭔지 아세요?” 질문에 답한 것은 이윤희 선임연구원이다. “유튜브에서 보긴 했어요” 그 말에 노시완 코치가 자신만 믿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스킵 운동은 말하자면 몸을 예열하는 연습운동이다. 러닝에 사용되는 근육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러닝 효율이 올라간다. 노시완 코치는 “스킵 운동은 러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라며 스킵 운동은 일종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가장 러닝을 안정적으로 하는 윤상준 선임연구원과 이윤희 선임연구



원이 앞장섰다. 두 사람은 노시완 코치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색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첫발을 떼었다. 두 사람의 자세를 살피던 노시완 코치는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라며 엄지를 내세웠다. 다음으로는 임태균 연구원과 정태식 선임연구원의 차례. 예전에 꽤나 달려서일까. 금방 자세를 잡은 정태식 선임연구원과 달리 임태균 연구원은 프롬프트가 잘못 입력된 로봇처럼 약간씩 삐걱거렸다. 이십 분 정도의 스킵 운동이 끝나자, 예열된 몸에서 열기가 흘러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숨이 차는데요?” 이윤희 선임연구원의 말에 다른 세 사람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다. 목을 축이고 숨을 고르면서도 네 사람은 코치를 향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기령, 팔을 어떻게 흔들면 좋을지, 호흡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작 페이스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등, 더 잘 달리고 싶은 러너 네 명의 질문에 코치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다.





넋이 달려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압도될 정도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달리는데, 그게 큰 자극이 돼요.

천릿길도 함께 달리기

노시완 코치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물었다.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나요?” 윤상준 선임연구원이 답했다. “저희 모두 다음 달에 있을 YMCA 서울 대회 하프마라톤에 참석하려고요.” “하프마라톤에 익숙해 지려면 우선 10km에 익숙해져야 해요. 오늘은 10km를 달려봅시다. 이 운동장 트랙이 400m니까, 5바퀴를 뛰면 2km예요. 6분 30초 페이스에 맞추어서 시작하고, 5바퀴를 뛸 때마다 조금씩 페이스를 올릴게요. 그렇게 4번 페이스를 올려 5분 50초로 10km를 완주해봐요.” 모두 일렬로 서서 첫발을 떴었다. 코치는 그 옆을 따라 뛰며 개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이어나갔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윤상준 선임연구원에게는 틈틈이 조언을 남기면서도 선두가 가장 힘들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임태균 연구원에게는 “무계중심이 뒤에 있으니 조금 더 앞으로 옮겨 움직이세요. 팔도 더 크게 움직이셔야 해요.” 하는 조언을 남겼다. 이윤희 선임연구원에게는 “페이스를 올려도 자세가 안정적”이라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몇 바퀴를 돌았을까, 페이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자 정태식 선임연구원과 세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다시 시작한 정태식 선임연구원은 일 년간 꾸준히 러닝을 해 온 세 사람의 페이스를 따라잡기가 어려웠다. 일대일 러닝 코칭의 장점이라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태식 선임연구원은 목표를 수정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렇지만 건지 않고 5km를 완주하기로 했다. 러닝은 자신만의 싸움이라는 말이 톡톡히 느껴졌다. 그렇게 네 사람은 묵묵히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서로의 페이스 메이커

가장 먼저 벤치로 돌아온 것은 5km를 달린 정태식 선임연구원이었다. 땀에 흠뻑 젖은 그는 물을 찾으면서도 세 사람이 반환점을 지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할 수 있다! 멋있다!” 그

말에 화답하듯 임태균 연구원이 장난스레 환호하고 윤상준 선임연구원이 손을 흔들었다. 시간이 흐른 후 이윤희 선임연구원이 들어왔다. 세 바퀴를 남긴 채였다.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들어선 이윤희 선임연구원이 벤치에 걸터앉았다.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뛰면 아예 못 움직일 것 같아.” 정태식 선임연구원은 이윤희 선임연구원에 물은 채 겨우며 격려했다. “평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뛸 것 아냐? 정말 멋지더라.” 마찬가지로 땀에 흠뻑 젖은 이윤희 선임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운을 차린 후에는 윤상준 선임연구원과 임태균 연구원을 함께 응원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야!” 화창한 날씨의 운동장에서는 대회 못지않은 열기가 흘렀다. “이렇게 넋이 달려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압도될 정도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달리는데, 그게 큰 자극이 돼요.” 정태식 선임연구원의 말에 이윤희 선임연구원은 동의했다. “저기 보세요. 태균이 지금 ‘러너스 하이’ 온 것 같은데요? 재 저러고 5km는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정태식 선임연구원의 말에 이윤희 선임연구원은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답했다. 그 말의 주인공인 임태균 연구원이 즐거운 얼굴로 벤치로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고는 홀로 트랙을 돌고 있는 윤상준 선임연구원을 응원했다. 자신이 받은 응원을 되돌려 주듯이.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돌아온 윤상준 선임연구원은 개운한 얼굴이었다. 혹사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클래스는 마무리되었다. 클래스가 끝났음에도 더 잘 달리기 위한 문답 세례는 한참을 이어졌다. 다음 달 있을 대회에서 자신을 넘어이기 위한 네 사람의 투지가 붉은 트랙을 달구는 듯했다.



MINI INTERVIEW

오늘 클래스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무엇인가요?



이윤희 선임연구원
전문적인 코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컸는데 기대 이상으로 만족해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코칭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윤상준 선임연구원
동료들끼리 팁을 공유하는 것도 좋았지만, 오프라인 코칭을 받으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다음 대회에서는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태식 선임연구원
원자력연료 매거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코칭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예전에도 혼자 운동을 하며 경험을 쌓다 보니 잘못된 지식도 있었거든요. 다시 예전처럼 뛰워 보겠습니다.



임태균 연구원
무엇보다도 동료들과 함께 뛰어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혼자 뛰는 것에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함께 뛰니 기록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풍류를 즐기기 좋은 날, 전통주 구독 서비스

'K-컬처' 열풍에 성장세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통주다. 정감 있는 소주와 탁주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통주가 MZ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전통주 시장은 나날이 성장 중이다.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한 잔인 셈이다. 오고 가는 술잔 속에서 다정만이 쌓이기를 바라며, 전통주 입문자를 위해 매월 가장 맛있는 재료로 만든 전통주 구독 서비스를 소개한다.





인재양성부 김지혜

평소 도움도 많이 받는 동료에게 요즘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깜짝 선물을 보내 보니다. 마음이 통하는 동료여서 그렇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술 한 잔 허고 잊어뿌라고~ 그렇게 짝 힘든 일 잊고 우리 일상을 또다시 열심히 달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보낸 동료에게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원자력연료 매거진 덕분에 부쩍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쁩니다.



Reply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되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몇 년 전 같은 부서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했고 헤어짐이 아쉬웠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서 전보다 더 친해질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락해야지” 하면서도 잘하지도 못했고 그런 저에게 다가와 줘서 미안한 마음도 크네요. 같은 공간에 함께할 날이 오래 남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또 만나서 즐겁게 술 한 잔 해야겠네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행주기술투 김지영



아버지와 마주 앉아 전통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전통주가 도착한 후 일정 문제로 아직 뵙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얼른 뵙고 싶어요. 본가를 떠나 지내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모님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맛난 술이 있으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보려 합니다.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술 한잔 나누며 깊은 대화 많이 나눴어요.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겠습니다.



전략기획부 김기태

평소 막걸리와 전통주를 좋아하시는 장인어른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 신청해보았습니다. 도착한 구성품은 봄 향기가 가득 담긴 전통주였습니다. 주말에 제철음식인 주꾸미 샤브샤브를 준비해 처가댁을 초대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이유로 자주 뵙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 간만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철 음식과 제철 전통주는 정말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특히 냉이주가 맛있었습니다. 냉이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재료인데, 이렇게 술로 담가 먹으니 새로웠습니다. 찾아보니 냉이주 역시 봄을 대표하는 술이더군요. 장인어른과 봄의 시작을 함께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전통주 구독 서비스를 계기로 삼아 장인어른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들 같은 사위가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장인어른!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환경부 윤리송

맛벌이로 초등학생 첫째 자녀 처음 학교 보낼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아이 친구 부모님께 전하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서툰 것도 많고, 신경 써야할 것도 많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잘 챙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도 잘 챙겨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통주 구독 서비스 택배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하루 내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스를 열어보니 봄처럼 아름다운 노란 박스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보내주신 소중한 전통주는 도움을 많이 주신 아이들의 친구 부모님과 같이 맛보려고 합니다. 후기를 위해 송이주를 남편과 같이 맛보았는데, 은은한 송이향이 부드러워 아주 목넘김이 좋았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회사에도 감사하고, 남은 전통주로 소중한 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소소한 즐거움, 배달 완료!

자고로 새 학기의 어색한 분위기는 용기와 함께 내민 간식 한 봉지에 풀려나가는 법이다.
그뿐인가? 초콜릿 한 알에 슬픔은 사르륵 녹고, 짹짹한 감자칩을 씹다 보면 스트레스도
와작 부서진다. 지친 일상 속에서 고마웠던 사람에게도, 친한 사람에게도
간식 한 봉지를 슬쩍 내밀어 볼 수 있도록 KNF가 준비했다.
함께 시간을 나누는 간식 세트 배달 완료!



미안하고 고마운 내 마음을 전합니다

To. TSA 기술부 직원들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13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TSA기술부의 부장으로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간식세트를 보냅니다. TSA는 제가 2006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장비 하나하나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상업가동 후 양산 생산계획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제 젊은 시절을 열정적으로 보냈던 친정 같은 곳입니다. 2022년 1월, 5년 만에 TSA기술부의 관리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직원들의 성장과 동기부여 등 리더의 모습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이 늘 미안했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말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고맙고 TSA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 남들이 다 몰라도 함께했던 우리는 그 마음 안다고~

From. 이길재, 품질검증부



친절함과 전문지식에 존경을 전합니다

To. 연료기술부

홍보부는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투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일반인 대상 홍보를 목적으로 시설투어를 진행하는지라, 유관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방문해 주실 때에는 연료기술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병주 부장님을 비롯해 연료기술부에서는 항상 내방객 시설투어를 친절히 도와주셨습니다. 또, 원자력연료 제조시설을 안내할 때에는 질의응답에 미처 답하지 못한 사항을 적어두었다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회사 자타공인 지식인 연료기술부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항상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꼼꼼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곤 했습니다. 고유 업무로 바쁘실 텐데도 내방객들을 위해 귀한 지식을 공유해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박식한 업무지식에 존경을 포함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드시며 잠시나마 지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rom. 권보라, 홍보부



튼튼한 파트너, 노동조합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o.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회사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주시는 노동조합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저희는 늘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활발한 소통과 상호 존중으로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열린 대화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노동조합 분들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잠시나마 바쁜 일상 속 휴식과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From. 정재나, 노사협력부

함께 떠나요, 지역축제

글: 편집실

세상에, 이런 축제도 있다니!

우리나라에는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로컬-합'이 유행하며 SNS를 통한 입소문을 타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피드에서 아쉽게 떠나보낸 축제가 있다면 주목! 올해에는 올해의 이색 축제가 열리는 법이다. 가족과 연인, 동료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알아본다. 한 명의 발걸음이 다음 해의 개최를 결정짓는 법이다.



1 가락을 빵축제 전국빵지자랑

서울 최초 빵축제, '전국빵지자랑'이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한다. 전국 각지의 유명 빵 100종 이상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빵 축제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버블&매직쇼와 즉석 삼행시 공모, 빵풍선 오마카세, 빵지자랑 기념품 등이 준비되어 있다.

★ 일시: 2025.05.09. ~ 05.11. / 11:00 ~ 18:00

📍 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몰 3층 하늘공원

🌐 홈페이지: <https://event-us.kr/garacmall/event/102703>

2 제주 푸드앤와인페스티벌

제주도의 대표 미식 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제주 푸드앤와인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찾아왔다. 열흘간 제주 곳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테이스팅, 디저트 페어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 인기몰이를 했던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셰프와 제주 셰프가 협업하는 '고메 디너'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제주로 떠나자.

★ 일시: 2025.05.10.~06.15.

📍 장소: 제주신화월드 외

🌐 홈페이지: <https://jfwf.kr/>

3 부산 스텝업댄스페스티벌

스트릿댄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았다면, 부산으로 향해보자. 레난, 최영준, 오천 등 유명 댄서들이 저지로 참여하는 '부산 스텝업댄스페스티벌'은 월드 스트릿 1:1배틀, 댄스퍼포먼스 월드 챔피언십, 부산 대표 선발전, 주니어 퍼포먼스 챔피언십, K-POP 댄스 챔피언십과 같은 댄스배틀을 직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에 랜덤플레이댄스, 스트릿마켓과 같은 부대행사도 잊지 말고 챙길 것.

★ 일시: 2025.05.16.~05.18.

📍 장소: 부산 영화의전당

🌐 홈페이지: <https://busanstepupfestival.com>



4 장항항 수산물 꿀갭축제

매년 5월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는 '꿀갭 축제'가 열린다. 꿀뚜기의 '꿀'과 갑오징어의 '갭'을 합친 '꿀갭 축제'다. 축제에는 싱싱한 회는 물론, 갑오징어와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프로그램이나 수산물 깜짝 경매, 불꽃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일주일간 열리는 만큼 일정을 확인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 일시: 2025.05.16.~05.25.

📍 장소: 충남 서천군 장항항



5 과산 빨간맛 페스티벌

과산에서는 과산의 대표 농작물인 '고추'와 붉은 봄꽃을 내세운 '빨간맛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맴부심 파이터대회'가 함께 돌아왔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자. 그 외에도 '핫치맥 페스티벌'을 비롯해 감쪽한 '춤추는 곰돌 랜덤댄스', '식목일 기념 빨간꽃 화분 영수증 교환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에도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딱 좋은 '빨간 맛'이다.

★ 일시: 2025.05.23. ~ 05.25.

📍 장소: 과산유기농엑스포 광장

🌐 홈페이지: <https://goesanfestival.com/redflavor/>



6 도시캠핑 대전

충부권 최대 규모 캠핑 축제인 '도시캠핑 대전'이 올해도 개최될 예정이다. 캠핑 축제이자 전야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캠핑대전맥주축제 캠프'는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광장에서 열리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캠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캠핑 박람회도 6월 6일부터 8일까지 DCC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캠핑을 '찍먹'해보고 싶었다면 '도시캠핑 대전'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 일시: 2025.05.30.~06.08

🌐 홈페이지: <https://www.campingdaejeon.com/>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곳 없나?

주말이 심심한 KNF인은 주목!

축제부터 여행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를 추천한다. 국경을 넘지 않아도 우리가 즐길 곳은 이미 충분히 많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http://www.k-bestfestival.com/>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

